



- Cover Story
- IDI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10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I Interview

연구/원/소/식



인천발전연구원-도시정책연구
소 연구사례발표회
2007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인...



인천아프리에의 열다섯번째 만남
저희 동부공원사업소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휴식과 놀이, 맑은 공기속에서 자연과...

인/천/나/들이



배미꾸미 조각공원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에 위치한 배미꾸미 조각공원, 그 이름만큼이...

시/정/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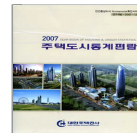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주차종합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언급할 때에 승...

도/시/동/향



시드니 달링하버 200년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신/간/소/개



2007 주택도시통계편람
국내외 각국 주택8228; 도시 관련...

저희 동부공원사업소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휴식과 놀이, 맑은 공기속에서 자연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10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먼저, 동부공원사업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동부공원사업소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휴식과 놀이, 맑은 공기속에서 자연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1992년도에 사업소가 개청되었고, 현재 7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사업소 내에는 보상과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운영과, 공원조성 및 공사를 전담하는 시설과, 인천대공원을 관리하는 대공원관리과, 환경미래관 등 총4개의 과가 분담하여 업무를 맡고 있어요.



동부공원사업소 김세웅소장

사업소 전체의 주된 관리권역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원 중 우리시를 동서로 양분하여 동쪽은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서쪽은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자체 87억원과 시재배정 620억원 등 총 707억원의 예산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인천에 있는 많은 공원들 중에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주요공원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우리시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공원으로서,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 위치한 대규모 공원과 근린공원 2개소, 도시자연공원 9개소 등 총11개소의 공원이 있어요. 인천대공원을 비롯한 계양, 원적산, 약사, 호봉, 연희, 불로 제1, 제2, 검단중앙공원 등의 대규모 도시자연공원과 중앙공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등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근린공원 등이 본 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이에요.

그 중에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우리 시 대표공원인 인천대공원은 시민 전체가 즐겨찾는 가장 인기 있는 공원이며, 인근의 부천, 시흥, 안산시 등의 시민들도 함께 많이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천대공원을 거쳐 소래포구까지 가는 장수천변 자전거 투어의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어요.

또한, 타 시·도에서 선진지 견학장소로 많이 찾고 있는 인천의 센트럴파크라 불리는 시청 옆 중앙공원은 357천㎡의 면적에 9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구별로 주요시설을 소개하면 동암역쪽 1지구는 300만그루 나무심기의 시민참여 뜻을 담은 「희망의 숲」이 조성되어 있고, 2지구는 물을 주제로 한 수변공간과 근린생활권 체육시설이 배치되어 있어요. 3,4지구는 정서순화 및 휴식공간을 강조하였고, 5지구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6지구는 올림픽 기념공간으로, 7지구는 우리 시 문화예술의 메카인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8지구는 교통교육공간, 9지구는 월드컵 프라자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휴게기능과 문화공간을 수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어요.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이라 하면, 인천대공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천대공원은 자연 속에 전시장같이 테마별로 공원을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여러 부대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훌륭한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한해 인천대공원에서 있었던 많은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관모산과 거마산 자락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은 우리 시의 자랑이며, 연간 300만명이 즐겨 찾는 인천의 대표 공원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원으로, 극심한 도시화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서 함양의 공간 제공과 단풍이 노랗게 물든 가로수속에서 잊혀져가는 농촌 풍경의 재현 등으로 서정적요소가 가득한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1982년부터 공원만들기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90%정도 조성이 완료되어 2010년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2,984천㎡의 면적에 1,100억원의 재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식물원, 수목원, 소동물원, 환경미래관, 광장, 주차장,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사계절썰매장, 호수, 축구장 등의 대표적 시설이 있고, 현재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생태교육이나 소풍, 야외공연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생태원을 이용한 청소년 체험마당 운영과 동물체험교실운영은 2007년 현재, 482회 운영에 13,67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2007년은 인천대공원이 그동안 관리위주의 공원행정에서 시설 기능 향상의 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금년 4월 준공된 상설전시장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전시기능의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고, 공원이 단순한 휴식장소가 아닌 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새로운 전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줄 봄꽃의 향연, 난전시회, 한국분재 대전, 나라꽃 무궁화 전시, 국화축제 등의 전시회가 개최되었어요.

공원내 오래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 받았고, 식물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인장, 열대식물을 분리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원두막과 체육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명품도시에 걸맞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원을 찾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어요.

금년 6월에는 인천대공원의 새로운 자랑거리인 환경미래관이 전국 최초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1만명이 방문하였으며, 명실상부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많은 환경지식을 제공하였어요.

금년 말 준공을 앞둔 수목원이 완성되면 인천대공원은 그야말로 휴식, 운동, 자연학습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가진 우리시 최고의 공원명소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해요.

인천대공원에서는 지난주 총14일에 걸쳐 국화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에게 국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을의 상징인 국화꽃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07년의 겨울에 만나 볼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007년도 국화축제는 국화분재가 처음으로 전시되는 등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였어요. 전시내역은 국화류 3,000점과 열매나무 22,000점 등으로 당초 10월25일까지 전시를 할 계획이었지만 국화상태와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28일까지 연장하여 전시하였어요. 1일평균 4,000여명(휴일1만명)이 관람하여 45만명이 다녀간 봄 벚꽃추?와 함께 인천대공원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자리잡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2007년 겨울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성탄절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대형 축제는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겨울철 사랑받는 놀이시설인 눈썰매장이 12월초 개장될 예정이에요. 눈썰매장은 전체시설을 개·보수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썰매장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개최될 축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린다면 설날 민속놀이를 시작으로 4월 벚꽃축제, 5월 보리·밀축제, 6월 장미축제와 추석날 전통민속경기, 성탄절 및 연말연시 축제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알찬 축제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공원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인천대공원 이용객은 연간 약300만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에 비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공원의 시설을 아끼고 보호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공원내 무단경작이나 합구로 쓰레기쓰레기, 다들기사, 이전기사, 정취기사, 정취기사, 정취기사 등 발생되 질서계도 직원
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앞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이점을 다시 한번 고
려하여 수준 높은 명품도시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래요.

또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인라인은 제2주차장 옆에 마
련된 인라인장에서 이용해주시고, 자전거도 우측 통행하여 공원내 질서유지에 동
참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겨울철 산불예방에 관해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원내 관모산과 거마산은 그동안 숲을 보호하고 가꾸어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
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민여러분의 자발적 산불예방 활동과 홍보 참여
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숲이 무성해질수록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지속적
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려요.

연/구/원/소/식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10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제2회 여성정책워크숍



2007년 10월 17일 수요일 14:00

본원 1층 대강당에서 "성인지 지표의 의미와 필요성-서울시 성인지지표를 중심으로"란 주제를 가지고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성인지 지표는 성불평등을 가시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필요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시의 성인지 지표 개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6년도 연구원 경영성과 관련 경영평가위원회



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15:00

본원은 2007년도 하반기에 2006년도 연구원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오후3시에 인천광역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도시정책연구소 연구사례발표회



2007년 10월 11일 목요일 14:00

2007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인천발전연구원-도시정책연구소 사례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김번욱, 이권형 연구위원이 "인천의 산업재생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기타큐슈시립대학에서는 윤명현, 요시무라 교수가 "지적창조도시의 형성과 도시간 연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사례발표회를 통해 양기관의 상호 벤치마킹과 연구성과를 심화하고, 해외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

습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10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에 위치한 배미꾸미 조각공원, 그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곳으로 기억된다. 영종도 삼목 선착장에서 차와 함께 배를 타고 10분후면 신도 선착장에 도착, 시도 다리와 모도 다리를 지나 계속 직진한 후 막다른 T자길에서 비포장길로 우회전하면 정말 생각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

예술이 공존하는 그 곳,

배미꾸미 조각공원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에 위치한 배미꾸미 조각공원, 그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곳으로 기억된다. 영종도 삼목 선착장에서 차와 함께 배를 타고 10분 후면 신도 선착장에 도착, 시도 다리와 모도 다리를 지나 계속 직진한 후 막다른 T자길에서 비포장길로 우회전하면 정말 생각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 탁 트인 바다와 그 중앙에 자리잡은 여러 조각 작품들 그리고 한쪽 모퉁이의 낡은 펜션, 해변을 바라 보고 있는 카페와 펜션...



'배미꾸미'는 통선, 일명 명탕구리배의 밑바닥을 뜻하는 말인데, 모도의 형세가 그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각작품 감상, 카페에서 차 한잔의 여유, 펜션에서의 휴식 이 3박자를 고루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배미꾸미 조각공원이라 할 수 있다.

배미꾸미 조각공원은 우리나라 감성작가 중 한명인 이일호 선생의 50여개의 초현실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곳에서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시간'과 '활'이 촬영되었으며, 특히 '시간'의 경우 영화의 반 이상이 조각공원을 담고 있다. 또한 배미꾸미 해변 한편에 자리잡고 있는 무동력 펜션은 영화 '활'의 중요세트로 사용되어 배미꾸미 조각공원은 미술조각품뿐만 아니라 영화라는 또 다른 예술 장르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배미꾸미 조각공원에서 즐길거리가 소진되었다면 가까운 거리에 풀하우스와 슬픈연가 촬영 세트장을 방문할 수 있다. 배미꾸미 공원이 위치한 모도에서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 시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다.

시도·시도·모도는 자은 다리를 여겨더어 이어 가져가



로 3개의 도 일주가 가능하다. 자전거는 시도노인회가 운영하는 대여소에서 5,000원의 대여료를 내고 빌려 타고 갈 수 있다.



배미꾸미 조각공원은 자기만의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관광지와 잘 어우러진 곳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배미꾸미 조각공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각작품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과 초현실적 작품을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각작품의 관리와 일반인들도 조각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시간', '활'과 같은 영화를 촬영장소인 배미꾸미 조각공원에서 촬영한다면 배미꾸미만의 작은 예술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배미꾸미 조각공원 가시는 길 .

산도 선착장에서 산시도 공영버스를 타고
모도 버스정류장 하차(약 10분 소요)
내려서 10분가량 걷다보면(1km)
배미꾸미 해변 도착.

학교녹화사업의 사업단계별 개선방안

▶ 학교녹화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필요

인천광역시 2003년부터 Green 인천 300만주 심기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담장어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본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다양한 형태의 학교비오터를 관내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성하였다.(2007년 60여개소 추진 중)

본 사업의 목적은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지 녹화와 공원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함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에게는 근린공원의 기능을 제공함과 아울러 도시녹지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들 사업대상 학교들에 대하여 학교녹화사업에 나타난 각종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설문지와 인터뷰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다.

▶ 다양한 비오터의 조성과 구성원의 참여 필요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학교녹화사업의 목적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단순히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데에 두지 말고 향후에는 숲뿐만 아니라 습지, 초화원, 텃밭, 연못, 계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비오터를 이용한 자연체험을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학교녹화사업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진행됨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다양한 의견과 참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학교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연구회의 운영이나 학생들의 클럽활동, 수업시간을 이용한 학교비오터의 조성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사전교육 강화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학교관계자, 행정기관 담당자, 업체관계자 등이 학교녹화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을 위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우수사례지 답사나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배포, 사업의 절차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 인지를 통해 잠재적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이 높았다.

또한 학교측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계 및 시공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현장에 맞는 질 높은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설계비의 현실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았다. 아울러 봄철에 집중된 식재공사를 가을철로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시공의 질을 다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의사전달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사업의 일정과 내용, 하자처리의 일정과 내용등의 관련 정보에 대해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의사전달의 주체를 구청의 감독관과, 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명확히 하고 학교측에서는 교장선생님 또는 담당선생님을 선정하여 책임감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조성공사 이후의 하자단계에서도 지속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 후 관리 단계에서는 관수, 잡초제거, 쓰레기 처리 등 기본적인 관리는 학교측에서 담당하고 병충해 방제 등 전문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선 학교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성 후 안정단계에 접어들때까지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 학교비오터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별로 학교비오터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규교육의 일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별로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이나 담당교사 연수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였다.

시/정/연구

인천광역시 주차종합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교통연구실 한중학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10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언급할 때에 승차난, 소통난, 주차난으로 분류하는데, 인천광역시의 주차문제는 국내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90년대 승용차 대중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줄곧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도심지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시가지 전역에 걸쳐 주차난이 심화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인천광역시 주차종합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언급할 때에 승차난, 소통난, 주차난으로 분류하는데, 인천광역시의 주차문제는 국내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90년대 승용차 대중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줄곧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도심지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시가지 전역에 걸쳐 주차난이 심화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이 연구는 각종 개발과 국제적인 행사 유치로 인한 장래 인천광역시의 주차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이용 및 교통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주차종합정책방향을 제안하였음.

◆ 주차정책의 문제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주차문제는 주차수급 불균형, 주차수요관리 미흡, 불합리한 주차요금체계, 느슨한 불법 주차차 단속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출되고 있음.

- 주차시설 부족 및 부설주차장 위주의 주차공급

2005년 12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는 800천대이며, 그 중 승용차는 72%인 577,649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면수는 총576,578면으로 부설주차장이 가장 많은 478,400면이며, 다음으로는 노상 65,510, 노외 32,666면 순으로 집계됨.

- 지역별 주차수급 불균형

지역별 주택형태와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수급상황이 매우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업무·상업지역보다 구 시가지와 저밀도 주택가의 주차여건이 열악함.



연수구-아파트 중심 주거환경



남구-저밀도 주택중심 주거환경



제천시-주거지의 주차환경

- 공영주차장의 관리체계 미흡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율은 19.1%(14,295면/79,880면)로서 낮은 편이고, 주차요금 체계는 4~5급지 체계로서 시와 군·구의 요금체계가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주차패턴에 따라 탄력적인 주차요금 체계가 필요하나,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다양한 주차정책 구현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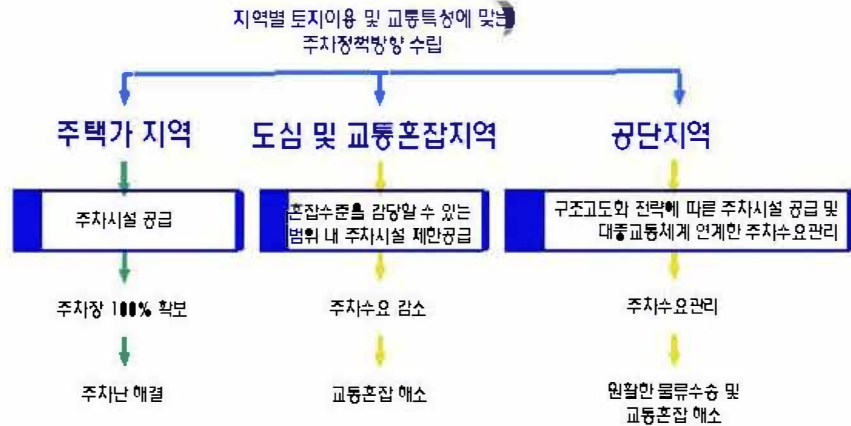
- 주차문화의식 부족

어떤도로나 가로변에 무단 불법 주차하는 사례, 법적 주차시설로 확보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 주차단속에 대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수긍하는 경우는 드물고, 격렬한 항의를 하거나 단속원을 찾아가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제도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단편적인 단속활동 등 주차문화의식이 부족함.

◆ 주차정책방향

거시적인 교통정책 범주에서 주차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형 주차정책 기반조성과 추진체계 구축이 요망됨. 도심부 주차공급은 가능한 억제하되 교통수요관리의 거시적인 정책기조하에 대중교통시설 확충, 교통유발부담금제, 교통기반시설부담금, 승용차 부제 주차요금, 주차상한제,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인천광역시 주차정책기조>

합리적인 주차수요관리 대책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하며, 아울러 주차시설 운영효율화 및 불법주차 근절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현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주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부 단독주거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수급 적정화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대책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래시점에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한 도시개발과정에는 선진국의 차량소유패턴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적극적인 유도·제한이 필요함.

다양한 범주의 주차정책들이 적기·적재적소에 종합적으로 적용될 때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통난의 해소도 도모해 볼 수 있음. 특히 박차, 주차 및 정차 등 주차 형태별, 도심/주거지 등 지역별, 사전·사후 등 시기별로 차별화된 주차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주차단속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동시에 친환경적 주차정책과 대중교통의 육성을 통하여 주차 수요를 감소시키는 등 대체효과를 통한 주차문제 해소에도 힘을 때 진정한 교통난 해소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는 2006년 8월~ 2006년 12월까지 수행된 정책과제로서, 모든 자료는 2005년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Cover Story
- DI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10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일컬어지는 시드니. 이 도시를 대표하는 친수공간이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이다. 시드니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불과 1Km 지점에 위치한 달링하버는 과거에는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로, 지금은 시드니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의 관광여가활동 공간으로서 도시의 중심 기능을 맡고 있다.



시드니 달링하버 200년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일컬어지는 시드니, 이 도시를 대표하는 친수공간이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이다. 시드니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불과 1km지점에 위치한 달링하버는 과거에는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로, 지금은 시드니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의 관광여가활동 공간으로서 도시의 중심 기능을 맡고 있다.

1788년 영국으로부터 이주자가 이 지역에 도착하면서 시드니는 도시로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 초기 정착민들은 달링하버 지역을 길게 안으로 들어간 지형의 모습을 따 롱 코브(Long Cove)라 불렀으며, 이 중 낚시와 외식의 명소가 된 일부 수변 공간을 코클베이(Cockle Bay)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1826년에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의 주지사 랄프 달링(Ralph Darling)의 이름을 따 지금의 달링하버(Darling Harbour)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 즈음 달링하버는 시드니의 물류와 제분의 중심지로써 빠르게 성장하였다. 1858년에는 달링하버 양측을 연결하는 피어몬트 브리지(Pymont Bridge)가 건설되었고, 1870년에는 항구와 연결되는 철도가 개설되면서 주변 지역의 상업기능이 성장하였다.

1900년대 중반까지는 국제무역이 증가하면서 달링하버의 성장이 계속되었고, 세계2차대전 기간에는 군수물자의 공급항 기능을 수행하였다. 2차 대전 후, 호주 정부는 노동인구의 부족이라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고,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 수용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2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시드니에 도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달링하버는 유럽이민자를 맞이하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으로 보는 달링하버 변천사

1888년의 달링하버



1951년의 달링하버



1951년의 달링하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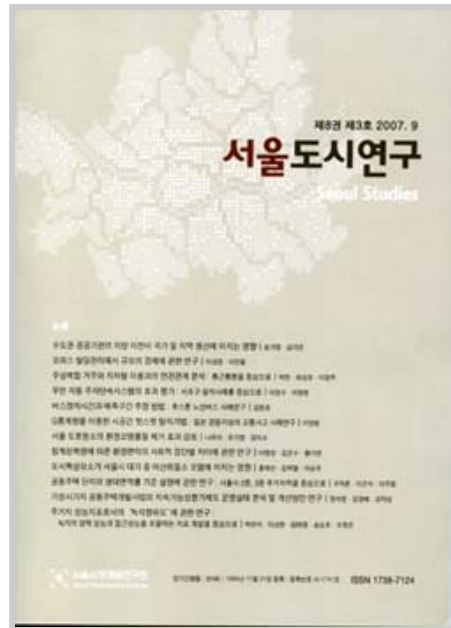
1950년대까지 시드니의 물류와 상업 중심지로 성장해왔던 달링하버는 1960년대 들어 시 동측 보타니 만(Botany Bay)에 컨테이너 수송항구가 개발되면서 물류와 상업기능의 쇠퇴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 들어서는 물류시설의 이용도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1984년,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달링하버의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산업항,물류항으로서의 기능을 폐쇄하게 된다.

그로부터 4년 후 시드니에 초기 이주자가 도착한 지 200년이 되던 1988년에, 컨벤션센터, 수족관, 해양박물관, 쇼핑센터 등이 들어선 수변 관광여가공간으로 재개발되어 시민에게 개방되었고, 그 이후에도 고급 식음시설과 수변시설이 개발, 정비되어 지금 상업, 전시, 휴식, 위락, 해양 관광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관광여가공간으로 개방된 1988년 이후, 1.5억명 이상의 시드니 시민과 방문객이 달링하버를 찾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2007년 9월에는 APEC정상회담이 이 곳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이스트(east) 달링하버를 수변관광여가공간으로 확대 재개발하기 위한 국제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008년부터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신간/소개

서울도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금번 발간호의 주요 논문으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가 및 지역 생산에 미치는 영향”, “오피스 빌딩관리에서 규모의 경제 관한 연구”, “주상복합 거주와 지하철 이용과의 연관관계 분석”, “무인 자동 주차단속시스템의 효과 평가” 등이 있으며, 총 12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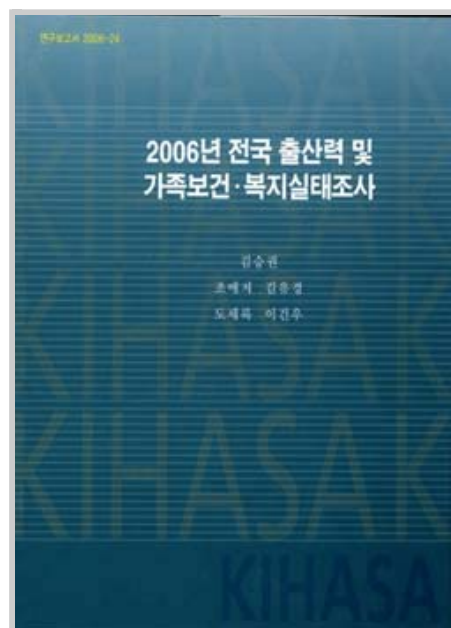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10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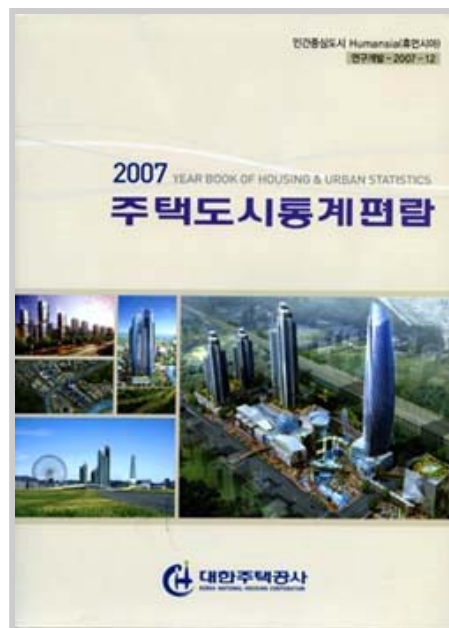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인의 임신 및 출산 행태, 피임 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책의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궁극적으로 출산을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조안정화를 도모하며,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7 주택도시통계편람



대한주택공사

국내외 각종 주택8228;도시 관련 통계를 광범위 하게 수록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수행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편집 발간된 편람. 국내 통계로는 시도별 행정구역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 현황, 인구8228;가구, 경제 8228;사회, 도시계획, 주택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외 통계로는 주요 국가별 주택통계등을 다루고 있다.